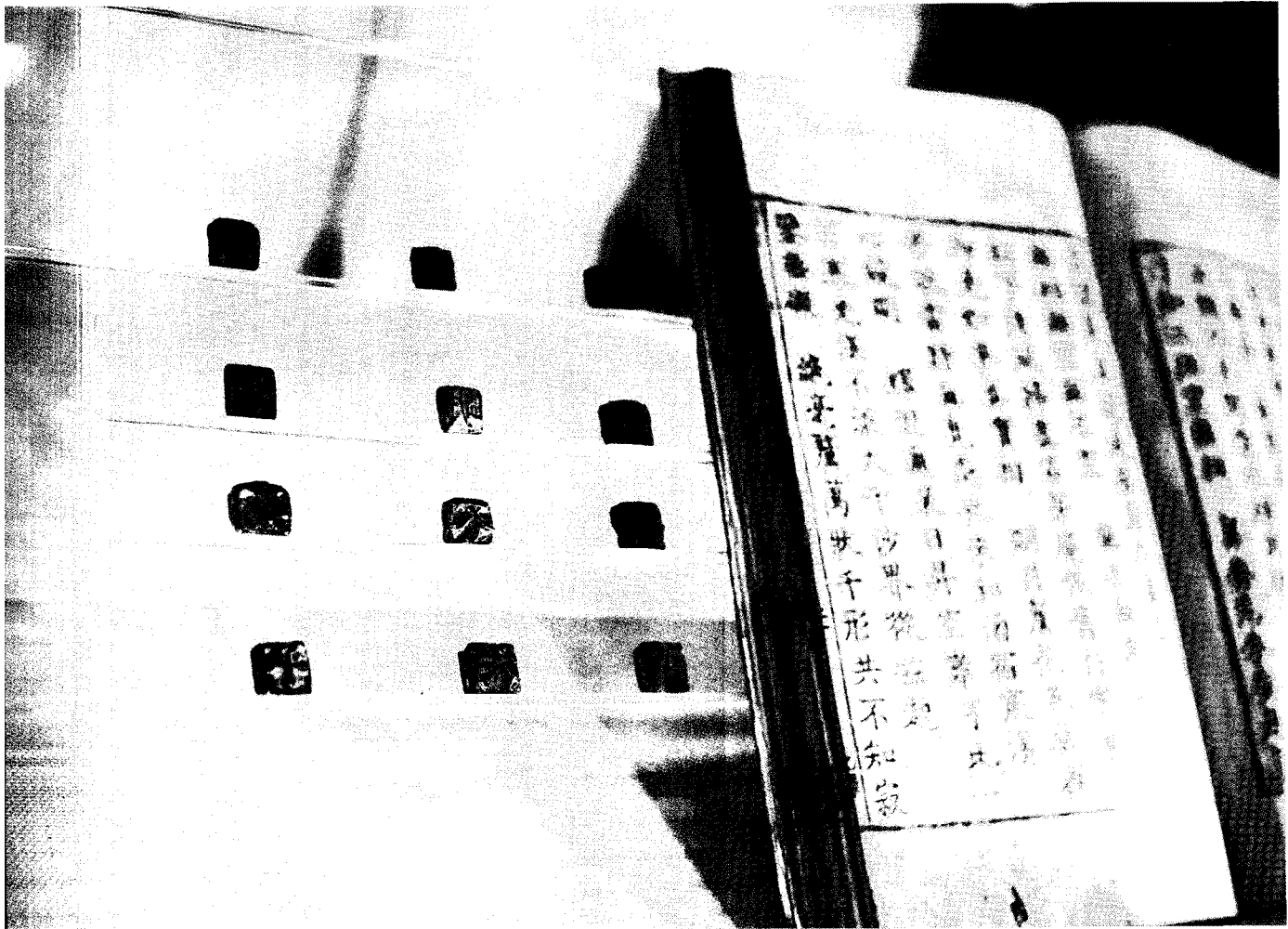


# 직지보다 140여년 앞선 금속활자 발견

## 경북대 남권희 교수 공개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으로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된 '직지'보다 빠른 활자가 최근 공개됐다. 직지보다 최소 138년 이상 앞서는 최고의 금속활자로 추정하고 있는 활자는 <증도가자>다.

서지학자인 경북대 남권희 교수는 지난 9월 2일 11시 서울 인사동 고미술 컬렉션인 다보성고미술이 소장한 금속활자 100여점을 분석한 결과 이중 12점이 직지보다 훨씬 앞선 13세기 초의 금속활자인 <증도가자>라고 말했다.



### <증도가자>에 대한 기록

증도가자는 <남명천화상승증도가>를 찍어낸 금속활자이다. 남명 법천선사가 선종의 진리를 한층 오묘하게 논설한 본서의 초간본은 1076년 중국 절강성의 팔창이라는 곳에서 간행되었는데, 고려는 송의 초간본이 수입되자 이를 금속활자로 찍어내 유통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금속활자도 금속활자 인쇄한 책도 전래되지 않아 누가·언제·어디에서 금속활자를 주조하였는지 또 누가·언제·어디에서 그 금속활자를 사용하여 찍어냈는지에 관해서는 알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활자의 크기는 1.0×1.0cm였으나, 자수는 알 수 없는데 다행히 번각본에 번각간행에 관한 기록이 있어 그시기를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삼성출판박물관에 소장된 보물 제758호 <남명천 화상송증도가>의 권말에 1239년 당시 무신정부의 1인자였던 최이가 각공들을 시켜 더 이상 전해지지 않는 금속활자본을 목판으로 복각해서 <증도가>를 찍어 냈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1232년 강화도로 천도하며 가지고 나온 금속활자본을 더이상 찍기 힘들게 되자 목판본을 만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목판본인 증도가보다 앞선 금속활자본이 이미 제작돼 유통됐다는 것이다.

목판본 증도가가 1239년에, 그리고 기록상의 금속활자는 그 이전이므로 1377년에 인쇄된 <직지심체요절>보다 적어도 138년 이상 앞서는 것이다.

### <흥덕사>자에 대한 기록

흥덕사자는 청주에 있었던 흥덕사에서 <직지>와 <자비도량참법집해> 등을 찍어낸 금속활자이다. 활자의 크기는 활자의 크기는 대자 1.0×1.0cm, 소자 1.0×0.5cm였으나 자수는 알 수 없다.

백은화상이 저술한 2권 2책본의 <직지> 금속활자본은 현재 첫째 장이 떨어져나간 총 38장의 하권 1책만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전래되고 있으며,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이다.

금속활자본 <직지>의 책끝에는 “선광칠년정사칠월일청주목외흥덕사주자인시(宣光七年丁巳七月日清州牧外興德寺鑄字印施)”라는 간기가 있어, 우왕 3(1377)년 7월에 청주목 외곽에 있었던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직지>와 <자비도량참법집해> 등을 통해서 볼 때, 흥덕사 나름의 재래식 방법으로 주조한 흥덕사자는 중앙관서에서 주조한 금속활자인 증도가자에 비하여, 글자의 크기와 모양이 고르지 않고 조잡하며 조판술도 미숙한 편이다.

그러나 원의 굴욕적인 지배로 중앙관서에서의 금속활자주조와 인출의 기능이 마비되었던 당시에 흥덕사는 금속활자를 주조하고 서적을 인출하여 고려시대 금속활자인쇄술의 맥을 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직지>를 인쇄했던 활자는 1377년 주조된 <흥덕사자>인데 실물은 전하지 않고 상 하권 중 하권만 프랑스국립 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또한 <직지>는 서양의 구텐베르크가 제작한 <42행 성서>보다 78년이나 앞선 1377년 제작돼 2001년 유네스코의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남건희 교수

출생 1956년 2월 11일

학력 대구가톨릭대학교대학원 국어국문학 박사과정 수료

소속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한국 시지학회 회장

주요저서 및 보고서 <동아시아의 목판인쇄 - 한중일 목판인쇄의 실태와 현황>

(한국국학진흥원 2008)

<조선왕실 주조 금속활자 복원사업-조선전기기의 금속활자>

(문화재청 청주시 충청북도 2009)

<금속활자 주조 및 인쇄기술사 복원 연구결과 보고서>(청주시 2006)

<직지와 금속활자의 발자취>(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원본임을 주장하고 있는 증도가자 활자

### 고려 <복>활자와 <전> 활자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는 개성의 개인 무덤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고려시대 금속활자인 <복>활자 하나가 있고 개성박물관에도 고려의 왕궁이 있었던 개성 만월대 신봉문에서 출토된 고려시대의 금속활자인 <전> 활자 하나가 전해지고 있다.

이들 활자는 한결같이 누가 무슨 용도로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해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들 활자는 고려시대 금속활자의 구조와 책의 간행을 실증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활자들이다.

고려 <복>활자의 크기는 1.0×1.0cm이며 이 글자는 자전에도 나타나지 않는 벽자이므로 일반적인 저작을 간행하기 위한 금속활자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활자의 구조방법이 아주 미숙하여 활자의 모양이 가지런하지 않고 자획이 고르지 않으며 네 변의 길이도 앞뒤로 차이가 있고 활자의 뒷면이 타원형으로 움푹 파져있다.

### 증도가자가 세계 최고인 이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직지보다 더 오래된 금속활자는 <증도가자>다. 그동안 <증도가자> 금속활자는 물론이고, 책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훨씬 후인 직지의 책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으로 인정받았다.

따라서 이번 <증도가자>의 발견이 진본이라면 직지보다 138년 앞선 활자본이 아닌 활자 자체가 발견된 것인 만큼 더욱 뜻깊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지난 9월 2일 남권희 교수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4년동안 연구를 진행했다고 한다. 그가 연구한 금속활자의 글씨체와 목판본에 있는 글씨체가 일치한다고 밝혔다.

남교수는 “밝을 명자의 경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복>자와 형태적으로 같으며, 서체도 13세기 당시 책(판본)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당시 인쇄할 때 칠해진 먹이 글자의 획 사이에서 확인되었고, 활자의 글자면과 획의 마모 등 전존상태로 볼 때 다수의 책을 찍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직지>를 찍은 활자를 구조한 밀랍 구조방식이 아닌 주조시 모형 주물틀의 상호로 분리되어 주조되는 주물사구조방식으로 제작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활자를 소량 깎아내어 분석하는 방식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지만 보다 확실한 검증은 위해서 이 분석 방식도 추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금속활자의 구조와 조판

#### ▶ 밀랍을 이용한 금속활자 구조(흥덕사자(직지) 제작방식)

벌집의 짜끼기를 가열, 정제하여 얻어지는 밀랍(蜜蠟)에 자본을 붙여 글자를 새긴 뒤 이암(석비레), 황토, 모래를 혼합한 흙으로 감싸 주형을 만든다. 주형이 마른 뒤 불로 가열하여 밀랍을 녹여낸 공간에 쇳물을 부어 활자를 만든다.

1. 글자본을 밀랍봉에 뒤집어 붙여 밀랍자를 새긴다.
2. 밀랍자를 밀랍가지에 붙인다.
3. 이암(석비레), 황토, 모래 등을 혼합해 밀랍가지를 감싸 주형을 만든다.
4. 주형이 마르면 열을 가해 밀랍을 녹인다.
5. 주형 내에 쇳물을 부어 활자를 만든다.
6. 주형을 깨뜨려 가지쇠에 붙은 활자를 떼어내 다듬어서 완성한다.

#### ▶ 주물사를 이용한 금속활자 구조(증도가자 제작방식)

나무에 글자본을 붙여 어미자를 새긴 뒤 주물사에 어미자를 놓고 다져서 자형을 만든다. 이를 감싸고 있는 거꾸집에 탕도를 내어 쇳물을 부어 활자를 만드는 방법으로 조선시대에 일반화됐다.

1. 글자본을 나무막대에 붙여 어미자를 새긴다.
2. 거꾸집 안에 어미자를 싣고 주물사를 다진다.
3. 거꾸집에서 나무자를 떼내고 상,하를 맞춘다.
4. 쇳물을 붓고 난 다음 거꾸집을 분리하고 주조된 가지쇠를 들어낸다.
5. 가지쇠와 연결된 활자를 떼어낸 뒤 글자면과 옆면, 뒷면을 다듬는다.

아직은 주장일 뿐 검증작업 남아

<증도가자>가 세계 최고로 공인되면 금속활자에 대한 국사교과서 관련 기술은 물론이고 세계 인쇄술의 역사 또한 바뀌게 된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는 <증도가자>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은 <직지>가 된다. ☞

임남숙 차장 sang@print.or.kr

남권희 교수 일문일답

Q 어떠한 근거로 단정하는가?

A 그동안 청주고인쇄박물관과 함께 고려시대 활자를 연구해왔다. 2006년 청주고인쇄박물관과 함께 조선활자 복원작업을 했으며, 파리에서 직지 실물분석 작업도 하였다. 이처럼 그동안 활자연구를 계속해왔다.

이번에 연구한 활자는 100여개였는데, 그 중 12개의 활자가 증도가의 활자와 일치했다. <증도가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증도가만이 쓰는 글자모양이 있기 때문이다. 그 글자는 한두글자가 아니고, 대부분의 글자에서 나타난다.

Q 왜 학계와의 사전 논의없이 언론에 우선 발표를 하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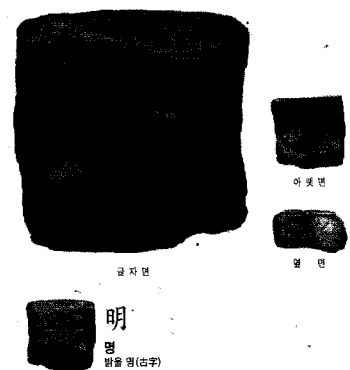
A 물론 학계와의 연구를 거쳐 어느정도 확정이 된 다음에 발표하는 것이 순서이긴 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언론에 발표를 먼저 하였는데, 공개적으로 학계에서 <증도가자>를 연구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지금도 빠른 게 아니고 늦었다고 생각한다. 저 혼자만 연구하는 것이 아닌 빨리 <증도가자>에 대한 공동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Q 이 유물은 어떻게 수집하게 되었는가?

A 이 유물의 소유주는 누구인지 밝힐 수 없다. 이미 언급한 대로 차차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분은 이 유물이 북한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것을 다시 한국으로 가져온 것이라고 말했다. 알다시피 현존 고려 금속활자인 <복>자와 <전>자 모두 북한에서 발견된 것이다.



고려시대 활자의 글자체 비교



명	明	明	明	明	明	明	明
명	明	明	明	明	明	明	明
명	明	明	明	明	明	明	明
명	明	明	明	明	明	明	明

목판본 <남명천화상송증도가>에 찍힌 명자들